

간협, 치매전문교육 마쳐

보건복지부 위탁받아 올해 세 차례 실시



대한간호협회는 올해 치매전문교육을 세 차례 실시했다. 사진은 3차 교육 모습.

대한간호협회가 개발 운영한 치매전문교육이 성황리에 열렸다. 총 350여명의 간호사가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간호협회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위탁 '치매전문교육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비를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간호협회는 2010년부터 매년 복지부 사업으로 선정돼 치매전문교육을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치매전문교육은 총 세 차례 실시됐다.

1차 교육은 7월 2·9·16일, 2차 교육은 7월 12~14일 진행됐다. 3차 교육은 10월 8·15·

22일 열렸다.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방문간호사, 치매교육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들이 참가해 치매간호에 대한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은 이론(온라인 교육 8시간, 오프라인 교육 32시간) 및 실습(8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론 강의에서는 '치매간호사의 역할' '치매의 경과와 진단 기준' 및 '감별진단' '치매대상자 간호' '치매약물요법·비약물요법' '치매대상자 신체기능 관리' '△증급상황 대처' '△치매대상자 신체증상' 등을 다룬다.

김숙현 기자 shkim@koreanurse.or.kr

호사례 스문제행동심리증상 이해와 관리 △치매대상자 가족교육 및 상담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연계서비스 제공 △노인인구 변화와 치매관련 국가정책 △간호윤리 등이 다뤄졌다.

실습은 대한간호인요양원과 지역치매지원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실시됐다.

교육을 마친 간호사들은 '치매환자, 고령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간호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치매간호에 대한 최신 경향과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어 좋았고, 간호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간호사의 경우 이번 3차 치매전문교육 수료 후 추가 교육(이론 16시간, 실습 16시간)을 이수할 시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보험 5등급) 대상자 방문간호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론 추가교육은 11월 12일과 19일 열릴 예정이다.

주제진 기자 hjo@koreanurse.or.kr

가'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도 내년에 합동외부평가를 받고 서태평양지역 자문그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회의 기간 동안 항생제 내성과 관련한 수석대표 회의와 GHSA 5자회담 및 한미 양자회담에도 참여했다.

내년 선도그룹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공고하고,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과 안보의 연관성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내년에 GHSA 선도그룹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은 글로벌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 및 민간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한국의 우수한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의 공중보건위기 대비 및 대응 능력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합동외부평

주제진 기자 hjo@koreanurse.or.kr

협에 대한 대응역량 및 국가 간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2014년 2월 출범한 협의체다.

GHSA 회의는 △고위급 회의 △선도그룹 회의 △행동계획 회의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번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2차 고위급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한국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신종감염병으로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겪었던 우리나라의 대응경험을 공유하고 위기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국가의 공중보건위기 대비 및 대응 능력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합동외부평

주제진 기자 hjo@koreanurse.or.kr

'유재라봉사상' 수상 홍영숙 보건소장

지역사회 위한 나눔과 봉사 실천

홍영숙 대구시 수성구 보건소장이 제25회 유재라봉사상을 10월 19일 수상했다.

유재라봉사는 유한양행 종업자

인 고유일한 박사의 딸 고유재

라 여사가 살아온 희생과 봉사의

삶을 기리기 위해 유한양행이 제정한 상이다.

매년 간호·교육·

복지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해 각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시상식에는 역대 수상자들이 참

석했다.

홍영숙 보건소장(59세)

은 김

전과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에서

보건학 석사학위,

대구한의대에서

사회복지학 박

사학위를 취득했다.

대구시 수

성구보건소

보건과장,

대구시 수성구 회복복

지위원회 등을 맡고 있다.

홍영숙 보건소장은 1978년 공

직에 입문해

가족계획,

모자보

건, 결핵,

정신보건

등 보건사

업 전반을 두루 거쳤다.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뚜렷

한 지역관과 주민에 대한 애정을

하였다.

주제진 기자 hjo@koreanurse.or.kr



홍영숙 대구시 수성구 보건소장(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유재라봉사를 수상했다.

바탕으로 보건행정을 펼쳐왔다.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결핵과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객담소각 시설 설치 등 획기적인 사업을 수행기도 했다.

지역사회 지원 및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생필품, 의료용품, 주거환경개선 등을 지원했다.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치이자 행복이라는 신념을 갖고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혼신했다.

투철한 사명감과 함께 탁월한 리더십과 친화력을 갖춘 간호사 기관장으로서 신망을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홍영숙 보건소장은 "큰 삶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공직에 몸담은 이후 늘 저소득층,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지역주민들을 동반자로 여기고 열심히 일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유재라봉사는 받은 사랑답게 최선을 다해 더욱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주제진 기자 hjo@koreanurse.or.kr

청구성심병원 간호사 시민 생명 구해

병원에서 표창 및 포상금 … 경찰서 표창도 받아

교통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간호사 소식이 알려졌다. 미답의 주인공은 청구성심병원 전보빈, 박솔애 간호사.

9월 29일 오전 8시45분경 서울은평구 연신내 지하철역 교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이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했

다. 이를 목격한 전보빈, 박솔애 간호사가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

다. 두 간호사는 밤새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사고를 당한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다. 두 간호사는 남성의 맥박이 뛰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고, 119구급대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간호사의 사연은 응급처치 상



원쪽 둘째부터 박솔애 간호사, 소상식 원장, 전보빈 간호사, 맨 오른쪽 이규민 간호부장.

황을 지켜본 모범택시 기사가 병원에 알려와 공개됐다.

청구성심병원(원장·소상식, 간호부장·이규민)은 전보빈 간호사(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와 박솔애 간호사(중환자실)에게 병원장 표창장 및 포상금 각 50만원, 간호부 포상금 각 10만원을 수여했다.

은평구경찰서에서 두 간호사에게 감사패를 10월 17일 수여했다. 은평구소방서에서도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최수정 기자 sjchoi@

제37회 간호문학상 작품 공모

- 모집부문 : 단편소설, 수기, 수필, 시
- 상 금 : 단편소설 및 수기 – 당선작 70만원, 가작 50만원
수필 및 시 – 당선작 50만원, 가작 30만원
- 원고마감 : 2016년 10월 31일(월)
- 수상작 발표 : 2016년 12월 중 간호신문 지면
- 작품 제출시 '문학상 응모작품'이라고 명기하고 응모부문, 면허번호(학생증사본), 전화 연락처를 기재할 것
- ※ 부문별 종복집수 불가, 한글파일로 작성 후 출력해서 접수할 것
- 보낼 곳 : (04615)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대한간호협회 간호신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02)2260-2571로 문의 바랍니다

(사) 대한간호협회 간호신문

간호신문	별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간호신문 (02)2260-257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s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69-6348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92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62-6006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80
강원도 (033) 263-64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윤리실천효과를 준수합니다.

간호사의 열정으로 한번 더 JUMP!

19년 전통의 간호교육연수원이 간호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합니다.

간호직공무원 / 보건진료직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공무원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RN-BSN / NCLEX-RN /